

선시(禪詩)로 본 조선후기 승려의 삶과 술

한수진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강사

sujin143@naver.com

I. 서론

II. 불교와 유교에서 바라보는 술

III. 승려의 삶 속 술의 역할과 의미

IV. 결론

요약문

올바른 도덕적 실천으로 금주(禁酒)를 강조하는 불교 음주 윤리는 전통적인 한국 불교에서 관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변모한다. 조선 후기 선시(禪詩)는 한국불교 음주문화 일면을 은유적 표현으로 말해준다. 조선시대에는 유가 윤리와 도덕이 사회에 삶의 방식과 가치를 제시하고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였으며, 술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물질이었다. 이러한 사회문화 환경이 승려가 술 마시는 것을 용인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유자들과 사회적 교류가 많았던 승려들은 유가의 음주 윤리와 문화를 수행 생활에 차용하였다. 그 배경에는 사회가 승려의 음주를 부추기고 관용적 태도와 옹호로 지지한 점도 있다. 무엇보다 유자들은 승려들과 음주로 소통하려 했다. 승려들 역시 유자들과 같이 비언어적 소통 수단인 술과 음주로 그들과 친목을 쌓고,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 시를 지으며 관계를 유지하여 승려의 음주는 수행자로서 그들 정체성에 모호함을 불러왔다. 이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유자들이 동경한 음주시인 도연명이 추구한 은인(隱人)과도 같았다. 음주는

승려들에게 파계라는 내적 갈등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이들은 자기 규제와 절제로 술을 대한다. 조선 후기 불교에서 술은 사회와 관계 유지 수단으로 한국불교가 처했던 시대상을 대변하는 물질이었다. 이러한 한국불교 음주문화는 그것이 비록 불교 윤리에 반하는 것이나 조선시대 강력한 사회적 힘을 가진 유가 사회에서 한국불교를 지탱해준 힘이었다. 그러나 불교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불교 윤리가 다소 변형될 수는 있으나 근본이념을 잃어서는 안 된다.

주제어

조선불교, 음주문화, 선시, 선승, 불음주계, 음주 윤리, 술

I. 서론

술은 그 맛과 향, 음주 후 느끼는 기분 등으로 사람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 중 하나이면서 시대와 지역 구분 없이 고대에서부터 인류가 의례와 연회에서 애용하는 음료로 사회적 관계 유지에 중요한 물질이다. 삼국시대 불교에서는 술을 약으로 마시거나 중생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마시는 것은 죄로 보지 않으면서 재가와 더불어 승려의 음주 행위에 수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¹⁾ 고려시대에는 사원에서 주점을 운영하였고,²⁾ 주지하다시피 조선 중기 석가모니불의 화신으로 추앙받았던 진묵(震默, 1562-1633)대사가 술을 곡차(穀茶)라고 불러 마시며 조선시대에 불교에서 금주 실천은 엄격하지 않았다. 한편, 사찰에서는 양조에 필요한 누룩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는데 이는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사찰에 징수한 세금과 노역을 충족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지만 사찰에서 술 소비를 부추기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³⁾

이렇듯 전통적인 한국불교에서 가진 술과 음주에 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승속을 구분하지 않고 술을 금지하여 한국불교의 음주

1) 이자랑 2021, 89-91.

2)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병희 2013, 227-269; 정용범 2014, 1-35를 참조.

3) 한수진 2022, 250-253.

행위는 분명 불교 윤리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사회에서 종교적 실천과 정체성 유지에 ‘술’이 불교 내에서 수행한 역할은 무엇인가, 무엇이 승려에게 불음주계를 범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켰을까와 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이들 물음에 답변할 단초는 17-19세기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환성 지안(喚醒志安, 1664-1729), 오암 의민(鰲巖毅旻, 1710-1792), 연담 유일(蓮潭有一, 1720-1799), 징월 정훈(澄月正訓, 1751-1823), 월하 계오(月荷戒悟, 1773-1849), 금명 보정(錦溟寶鼎, 1861-1930) 선사 등이 지은 선시(禪詩)에서 찾을 수 있는데,⁴⁾ 선사들의 문집에는 직접적으로 술을 노래한 음주시(飲酒詩)는 없지만, 유자들과 교류한 승려들이 그들이 향유한 음주 생활과 술에 담긴 의미를 선시에서 상징적으로 묘사해 말해준다. 선시에는 선승이 깨우친 선의 세계와 깊은 내면적 통찰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승려들이 가진 경험과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시대적 이질감이 있는 조선 후기 승려들의 생각과 의식을 온전히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오만이며 그것을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종교 연구는 주관성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상징 등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보여주는 행위와 상징이 전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해석은 사회 규범과 관습이 포함하고 있는 문화적 맥락을 기준으로 끌어낼 수 있다.⁵⁾ 그렇다면 조선후기 승려들의 음주 문제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사회의 음주문화와 규범과 비교하고, 선시에 드러나는 표층적 내용 분석으로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양란 이후에 유자들은 유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백성들에게 유교 경전을 교육하여 사회 전반에 유교 덕목이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는 의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사회적 교육 환경은 승려들이 출가한 이후에도 이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출가 전 유가 교육을 받은 승려 수 증가는

4) 본고에서 『오암집』과 『다송시고』를 제외한 이외 문집에 수록된 선시는 동국대학교출판부에서 출간한 번역본을 참고하여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5) 리차드 컵스탁, 윤원철 역 2017, 32-33.

승려와 사대부가 개별적으로 교류하는 기회를 촉진하여, 승려들은 사대부들과 시나 편지글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고 소통했다.⁶⁾

그 결과 유자들은 그들과 문학으로 교류한 승려에 대해서는 승려로서 지닌 품모와 자질을 높이 평가했고, 유·불 화합을 문학적 교섭을 통해 던지며 선사들이 추구한 선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다.⁷⁾ 유자들은 불교적 가치와 가르침을 실현하고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는 유교적 덕목을 갖추고 실천하는 승려를 더 높이 샀으며, 뛰어난 유교적 학식과 덕목을 지닌 인재가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것을 부정하며 안타까워했다. 게다가 불교에서는 유자들이 보인 불교 폄하나 왜곡된 인식에 맞서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었고, 시대적 문제에도 불교적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상적으로도 유자들 견해에 동조하며 유교 체제에 순응적이고, 무저항적인 태도로 대응했다.⁸⁾ 이처럼 조선시대 승려와 유자 간 교류에 있어서 상호관계는 불교 우위나 수평 관계가 아니었다. 따라서 조선불교 음주문화는 단순히 불교 내부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유가 사회와 교류하면서 그들로부터 문화적 영향을 받아 외부적 요인에 기인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사회를 이끌었던 술에 대한 유가 규범과 관습을 불교와 비교하는 것이 불교 음주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음주와 관련된 선시에 나타난 텍스트 분석으로 유가 사회가 지녔던 술과 음주에 대한 시대적 인식과 활용이 불교에서 수용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승려들이 살아간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술에 부여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와 같이 불교문화 형성에 비불교적 외적 요인이 불교에 침투되었을 때 불교 정체성 확립에 끼치는 영향력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6) 박해당 2012, 213.

7) 장병한 2016, 152-154.

8) 박해당 2012, 220-226.

II. 불교와 유교에서 바라보는 술

1. 금지 대상으로 보는 불교

불교에서 규정한 승려가 지켜야 하는 음주 규범은 오계와 생활 규범집인 율장에서 바일제(波逸提, *pācittiya*)⁹⁾ 조문 중 불음주계에서 제시한다. 이 조문에서 붓다는 불교의 음주 윤리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며 제시한다. 광율에서는 불음주계 조문 제정 배경을 사가타 비구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광율 속 인연담은 대체로 유사한데 『빨리울』과 『사분율』을 보면, 재가자들은 악룡(惡龍)을 조복시킨 사가타 비구에게 공양 올리고 싶어 하고, 이를 안 육군비구는 술 공양을 추천한다. 그래서 재가자들은 걸식에 나선 사가타에게 술을 보시하고, 걸식 때마다 보시받은 술을 마신 사가타는 취해 땅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만다. 이때 붓다와 제자들이 마을에서 승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에 취해 붓다 앞에서 추태를 부린 사가타를 데려온다. 이 일을 계기로 붓다는 약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단 한 모금의 음주도 허용하지 않는 불음주계 조문을 제정한다.¹⁰⁾ 붓다는 계율을 제정하기 전 비구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비구들이여, 도대체 마실 수 있는 것을 마시고 의식을 잃을 수 있는가?¹¹⁾

이 물음에서 붓다는 의식을 혼미하게 만드는 음료 음용을 반대하며, 술은 규제 대상으로 거부해야 하는 물질로 상정했음을 알 수 있다. 『승기율』에서 붓다는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하지 않으려고 해도 취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¹²⁾ 술은 음주자가 정신력이나 의지력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화학적 물질 특성을 가졌다. 그러므로 통제력을 잃지 않는 상황을

9) 바일제죄를 범하면 청정한 비구 1인 앞에서 참회해야 한다. 이때의 참회는 속죄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어 마음을 정화하여 악행을 반복하지 않는 데 목적이 있다. 히라카와 아키라, 석해능 역 2003, 291-293.

10) Vin IV. 108-110; 『四分律』(T22, 16: 671b-672a).

11) Vin IV. 110: “*api nu kho bhikkhave taṃ pātabbaṃ yaṃ pivivā visaṃṇī assāṭi.*”

12) 『摩訶僧祇律』(T22, 20: 387a13): “復問比丘, 若多飲酒已欲使不醉, 可得爾不.”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붓다는 죄를 짓는 원인은 음주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아,¹³⁾ 술 자체보다는 술을 마시는 행위에 방점을 둔다. 『사분율』에서 붓다는 음주는 건강을 해치고, 폭력을 저지르며, 사회적 비난을 받고, 급기야 삼악도에 떨어지는 과실을 불러온다고 말한다.¹⁴⁾ 곧 술은 몸과 마음을 방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붓다는 술을 선(善)과 불선(不善)의 도덕적 분별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멀리해야 하는 물질로 보는 것이다.¹⁵⁾

제 율장에서는 각기 내용은 상이하지만, 술의 정의, 종류 등을 설명한 후 음주 행위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제시한다. 『빨리율』과 『사분율』에서는 비구가 ① 술을 술이라고 ㉠ 인식하고 또는 ㉡ 의심하고 마시거나, ㉢ 술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마시면 바일제를 범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추가로 ② 술이 아닌데 술이라고 ㉠' 인식하고, ㉡' 의심하고, ㉢' 술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마시는 것은 돌길라¹⁶⁾ 죄를 범하는 것이다.¹⁷⁾

이들 상세 규정에서 시사점은 범계 판단과 처벌 기준 제시를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붓다는 ‘동기’와 ‘결과’를 기준으로 계를 어길 시 율을 적용하는데, 행위에 담긴 고의성과 결과를 경중으로 따져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면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인지하는 습관을 중요시한다.¹⁸⁾ 율장에서는 음주 문제에도 동일한 방식을 취한다.

먼저, 술은 색·향·맛으로 감별할 수 있어 감각으로 술을 인지하여 술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마시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술이라는 의심이 조

13) 『十誦律』(T23, 17: 121b5-6): “如是過罪, 若過是罪, 皆由飲酒故.”

14) 『四分律』(T22, 16: 672a16-21): “佛告阿難, 凡飲酒者有十過失. 何等十. 一者顏色惡, 二者少力, 三者眼視不明, 四者現瞋恚相, 五者壞田業資生法, 六者增致疾病, 七者益鬪訟, 八者無名稱惡名流布, 九者智慧減少, 十者身壞命終墮三惡道.”

15) 김한상 2015, 252; 256.

16) 돌길라(突吉羅, *dukkṭa*)죄는 악작(惡作)으로 의역하기도 하는데, 경죄에 속하고 계를 어기면 스스로 마음으로 참회해야 한다.

17) 『四分律』(T22, 16: 672b13-14): “酒酒想, 波逸提. 酒疑, 波逸提. 酒無酒想, 波逸提. 無酒有酒想, 突吉羅. 無酒疑, 突吉羅”; Vin IV, 110: “*majje majjasaññī pivati, āpatti pācittiyaassa. majje vematiko ...*중략...*majje amajjasaññī pivati, āpatti pācittiyaassa. amajje majjasaññī, āpatti dukkaṭassa. amajje vematiko, āpatti dukkaṭassa. amajje amajjasaññī, anāpatti.*”

18) 한명숙 2012, 449-451.

금이라도 들었는데도 마시는 것(㉔)을 금지하여, 술을 마신 동기, 곧 음주가 의도적 행위였는지 그 여부에 초점을 두었다. ㉔는 i) 술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마셔 고의로 마신 경우와, ii) 색·향·맛으로는 술임을 알기 어려울 때 술인 줄 인식하지 못하고 마셔 고의성은 없으나 결과로는 술을 마신 두 가지 경우로 조문 해석이 가능하다.¹⁹⁾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은 술을 마셨다는 결과다. 붓다가 술을 금지한 것은 마신 후에 일어날 비도덕적이고 무익한 행위와 결과를 차단하려는 데 있다.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술을 마신 것이어서 범계로 보는 것이 조문 제정 목적에도 부합한다.

다음으로 ㉔'-㉔'에서는 술이 아닌 것을 마셔 취하지는 않아 마신 후 행동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것을 마신 동기에 있어서는 술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마신 경우이므로 이것은 술을 마시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바탕으로 한 처벌이다. 다만, 동기는 불손했을 수 있으나 술이 마신 것이 아니므로 취하지는 않아 후차적인 문제 소지가 없으므로 바일제보다는 하위 범주에 속하는 돌길라 죄를 적용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불음주계 범계 여부와 처벌 경중은 음주 동기가 고의적이었는지와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본유부율』에서 붓다는 그의 제자라면 스스로 술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말 것을 강조한다.²⁰⁾ 이와 유사한 규정이 중국불교에서 찬술한 『범망경(梵網經)』 보살계에서도 나타난다. 『범망경』에서는 음주를 금지뿐만 아니라 술을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권하는 행위까지 추

19) 여기서 전자(i)는 ‘동기와 결과’ 모두로 범계를 판단하는 것이고, 후자(ii)는 고의성은 없었으나 주의 부족으로 마셔 결과적으로는 술을 마신 것이므로 ‘결과’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사분율』에서는 색·향·맛이 없는 술이라도 술이면 마시면 안 되고, 이 세 가지는 있으나 술이 아닌 것은 마셔도 되는 것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무알콜성 술은 허용하지만, 취기를 일으키는 술의 본질적 특성을 가진 술은 불허한다. ㉔를 ㉔와 ㉔와 같이 범계 기준을 동기와 결과가 양립하는 조건이 성립할 때로 삼는다면, 전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역시 단정할 수 없어 후자로도 해석 가능하다. 여타 조문 해석에서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붓다는 고의성이 없는 행위에도 죄를 묻는데, 그것은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주의의 의무’에 불성실해서다. 『四分律』(T22, 16: 672b6-8): “或有酒, 非酒色非酒香非酒味, 不應飲. 非酒, 酒色酒香酒味, 應飲”; 한명숙 2012, 449.

20)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권42 (T23, 42: 859c13-15): “汝等若以我為師者, 凡是諸酒不應自飲, 亦不與人, 乃至不以茅端滌酒而著口中.”

가하여 음주와 관련한 일체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고주(酤酒)는 바라이²¹⁾ 중죄로 분류하고, 타인에게 음주를 권하는 자는 오백세 동안 손이 없는 과보를 받을 것이라고 설하며 권주(勸酒)와 음주는 경구죄로 취급한다.²²⁾ 고주·권주·음주에 있어서 고주가 표면적으로는 권주·음주와는 다르게 더 무거운 죄로 보인다. 고주는 금전적 이익을 얻어 다른 죄보다 엄중하게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설령 술을 사고, 타인의 권유로 술잔을 받았다고 해도 술을 목 넘김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책임에 따른 의도적인 행위이므로 음주에는 손 없는 과보를 얻는다는 인과율을 적용하여, 업과 윤회에서 보면 결코 가벼운 죄로 보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삶의 일부로 보는 유교

조선시대에 술은 유교 규범에 입각한 생활을 중시하는 사대부에게 봉제사(奉祭祀)와 접빈객(接賓客) 등 일상 의례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음식으로 이때의 술은 가족제도와 국가정치를 안정시키고 강화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고,²³⁾ 선비들은 술을 매개로 자연과 하나가 되고, 그 과정에서 삶을 발견하며 인생철학을 시에 담아 표출하였다.²⁴⁾ 또한, 농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 기반을 주도하는 백성에게 술은 권농(勸農)에 농주(農酒)로 사용되어 힘든 농사일로 지친 심신 회복을 도왔다.²⁵⁾ 이처럼 조선 사회에서 술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일상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일부로 매우 중요한 알코올음료였다. 하지만 곡물로 만든 술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마음껏 마실 수 없었다. 그

21) 율장에서 바라이(波羅夷, *pārājika*)죄는 살인·도둑질·망어·음욕죄를 범하는 것으로 영구히 교단에서 추방되어 복귀할 수 없다. 단, 음욕죄는 정상 참작하여 죄를 묻는다. 히라카와 아키라, 석해능역 2003, 270.

22) 『梵網經』 권2 (T.24, 1484: 1004c-1005b): “若佛子自酤酒, 教人酤酒, 酤酒因, 酤酒緣, 酤酒法, 酤酒業, 一切酒不得酤. 是酒起罪因緣. 而菩薩應生一切眾生明達之慧, 而反更生一切眾生顛倒之心者, 是菩薩波羅夷罪. ... 중략... 若佛子故飲酒而生酒過失無量, 若自身手過酒器與人飲酒者, 五百世無手, 何況自飲. 不得教一人飲, 及一切眾生飲酒, 況自飲酒. 若故自飲, 教人飲者, 犯輕垢罪.”

23) 진성수 2014, 285.

24) 김준혁 2014, 146-148.

25) 유옥경 2013, 396.

래서 폭음은 음주자가 재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폭음과 술 소비는 일상적인 문화 습성으로 나타난다. 과음은 인정하였지만, 추태는 금지하여 음주 통제와 처벌 기준이 불명확한 사태를 초래하여 사회적으로 음주가 우호적이고 포용적인 문화 관습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²⁶⁾

조선 사회에서 음주 관습은 유가 사상과 밀접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경』을 비롯한 유가 경전에는 술을 매개로 지은 음주시가 다수 있으며, 음주시에서 저자는 시대적 상황, 관습, 문화와 작자 개인의 정서를 은유와 상징으로 전환하여 표출하였다. 유가 경전에서 술은 일상적인 의례 실천에 있어서 중요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국가 운영에 중요한 매개물이자, 지도자와 개인의 덕 수양과 욕망 절제를 가늠하는 수단이다.²⁷⁾ 특히 중국 유가 음주시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도연명(陶淵明, 365-427)에 이르러 술의 의미를 확대하고 심화한 점이다. 도연명은 술에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인생관과 세계관을 반영하여 다양한 상징성을 부여하였으며, 자신의 마음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서로를 연결하여 타인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술을 묘사했다. 또한, 인생을 긍정적이고 여유와 즐거움으로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이상 실현이 불가능한 암담한 현실과 번민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가슴속에 깊이 쌓인 울분을 터뜨리고, 정신적 자유를 획득하는 몰아상망(物我相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물질로 사용했다.²⁸⁾

조선 유자들 역시 유가 사상을 바탕으로 음주시를 다수 지어 ‘음주 시인’으로 불린 도연명의 시 세계를 적극적으로 모방하면서 문학세계를 구축하였다. 도연명과 같이 사대부 간에 권력투쟁이 심각했던 조선은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었고, 이 시기 조선 문인들은 출사(出仕)와 귀은(歸隱)이란 갈림길에서 도연명이 선택한 귀은 한 삶을 선택하며 그를 추앙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도연명의 시 제목과 운자(韻字)를 빌려 시로 지은 화도시(和陶詩) 창

26) 김영미 2019, 13-15.

27) 진성수 2014, 279.

28) 송용준 2011, 308-323.

작을 부추기고,²⁹⁾ 문구를 의취(意趣)하여 시조와 가사에 수용하여, 문인들은 그들의 세계관을 드러냈다.³⁰⁾ 그러므로 조선시대 유자들에게 ‘술’이란 물질과 ‘술 마심’ 행위는 단순히 향락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가치와 철학을 대변하는 상징물로 승화되어 술은 이들의 삶과 사유 세계를 살펴보는 단서 역할을 한다.

유자들의 음주문화는 불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유교 교육과 문화에 익숙한 승려라면 출가 후에도 불음주계를 지키는 문제는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 유자들에게 술은 부와 명예, 욕망을 일으키는 금욕적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승려 음주가 사회적 비난거리나 윤리적 금기 대상을 탐하는 문제 행동으로 비치기보다는 오히려 유가 문화를 지지한 것으로 이해하여 포용적이고 관대한 행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III. 승려의 삶 속 술의 역할과 의미

1. 문예 창작활동 도구

조선 후기 승려들은 활발한 작시 활동으로 유자들과 교류했다. 고려시대에 활발했던 승려들의 작시 활동은 조선시대에는 시대적 상황의 영향으로 암흑기로 접어들었으나, 양란 이후 포교를 목적으로 한 불교 가사 작품 제작과 보급이 활기를 띠면서 18세기 중엽부터 승려의 선시풍(禪詩風)이 유행했다. 초의 선사를 필두로 유자들과의 교류는 선적 사유를 유자들이 그들의 작품세계에서 성찰하도록 했다.³¹⁾ 17-18세기에는 승려 문집 간행이 증가하는데, 유자들이 승려 문집에 서문과 발문을 작성하고, 고승의 비명을 짓는 것이 일상화되어 승려들은 유자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갔다. 특히 이들은 시를 지어 소통하며

29) 정숙인 2012, 93-95.

30) 김주순 2004, 224-232.

31) 조태성 2013, 307-308.

문예활동으로 교류를 이어갔다.³²⁾ 그러면서 유자의 문학 생활을 이끌었던 시 지으며 술 마시는 시와 술의 의존적 관계는 유자와 승려 교류 방식에도 적용되어 승려의 삶도 동화된다.

연담 유일선사가 전주 제관이 된 고을 수령을 생각하며, “등불은 객의 시름 벗겨주며 환히 깜빡이고 / 술은 시상 돌아주어 술에 취했다가도 깨누나.”³³⁾라고 읊어 취기가 연담이 시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왔고, 그 덕분에 술도 깨었다고 말한다. 다음은 월하 계오선사가 연등암에서 사람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을 묘사한 시이다.

등불은 그림 속의 꽃과 같고 / 시와 사람들 틈에 있으니 / 동자 불러 잔 씻
어 오라 재촉하고 / 술잔 기울이며 청산을 마주하네³⁴⁾

계오는 등불을 꽃에 비유하면서 그가 사람들과 선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 공간의 느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사찰에서 시 짓고 술로 소통하는 삶의 풍류를 읊었다.

징월 정훈선사는 그가 문신들과 교류하며 지은 시의 시운을 계오에게 주며 화운(和韻)하게 하자, 계오가 차운하여 시를 지은 후 “이제는 뉘와 함께 시와 술로 마음을 논할까 / 창 너머 추위가 베갯머리 꿈에도 하염없이 이어지네”³⁵⁾라고 이어서 지었다. 계오는 시와 술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쓸쓸해 하며 아쉬운 감정을 드러내고, 그 아쉬움은 추운 날씨와 같아 잠자리에 들어 꿈속에서까지 이어질 정도로 크다고 표현했다. 이 시는 계오가 직접적인 유자의 만남과 이별에서 오는 그의 감정을 노래한 시는 아니다. 그러나 당시 승려와 유자 사이에 있었던 교류 방식을 말해준다. 지식층 승려들의 주요한 대화 상대는 유자들이었으며, 유자들의 부재는 승려들이 자신의 사유를 교류할

32) 토마스 성은 김 2018, 311-314 재인용.

33) 『蓮潭大師林』 「冬至夜憶使君作完營祭官之行」(H224, 2:251b17): “燈伴客愁明不滅 酒挑詩思醉還醒.”

34) 『伽山藁』 「燈庵夜話」(H246, 1:761b13-15): “燈華如畫裏 詩語又人間 呼童頻洗勺 把酒對青山.”

35) 『伽山藁』(H246, 2:769c4): “文酒論心今與誰 隔窓寒枕夢依依.”

대상이 없음을 의미한다. 유자들에게도 지식층 승려들은 그들의 정신세계를 담론하는 상대였다.

징월은 의성 군수 김반(金磐)과 그의 아들 험지(驗之)와 친목의 시간을 보냈는데, 군수가 선사에게 시를 보내자 징월은 다음과 같이 화답한다.

문장은 나의 일이 아니요 / 명리는 사람들에게 맡겼지 / 다만 시와 술 잊
지 못해 / 표연히 자주 나그넷길 오른다오³⁶⁾

징월은 먼저 자신은 문장과 명리에 무관심한 속세를 떠난 수행자라고 말한 뒤 오직 자신이 버리지 못한 것은 시와 술이라고 밝힌다.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시와 술을 즐기려고 산사를 떠나 여기저기 유행한다고 말한다.

다송자로 불리는 금명 보정선사의 선시에도 술이 시와 함께 등장한다.

㉠ 다송자는 취암이 오기를 기다려 / 팔월의 가을에야 시와 술로 만났구나³⁷⁾
㉡ 수신함에 아직 계를 구축하지 못했는데 / 하물며 선정에 드는 것을 논
하라 / 시걸은 술을 탐한다고 말하지 말라 / 단지 사내들이 돈 때문에
죽을까 걱정이오³⁸⁾

㉠에서 보정은 취암 선사가 오기를 오래도록 기다렸고, 마침내 가을에야 이루어진 그들의 반가운 만남은 시와 술로 비로써 완성됐다. ㉡에서 보정은 선정에 계행 구축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한다. 그렇지만 구축계를 받지 못했다고 선정에 들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술을 마셔야만 시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술을 탐해 술을 구하려고 많은 돈을 낭비하다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고, 아니면 돈이 많아 그 돈을 모두 술 마시는데 써버

36) 『澄月大師詩集』 「奉和韶州倅金公」(H234, 1:488a5-6): “文章非我事 名利付時人 獨未忘詩酒 飄然客路頻.”

37) 『茶松詩稿』 「傷秋和吳翠菴」(H314, 2:654c19): “茶翁必待翠翁遊 詩酒相逢八月秋.”

38) 『茶松詩稿』 「夜咏」(H314, 2:659c13-15): “修身未具戒三千 況復論成入定禪 莫言詩傑長貪酒 只恐男兒竟死錢.”

려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보정은 시 지으면서 술 마심을 강하게 비판하여, ㉠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와 상반된 이견을 내놓는다.

또, 보정 선사는 순천 남쪽에 있는 김남파가 소유한 정자에서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소박한 술로 시 지으니 차는 반쯤 끓고 / 달뜬 강 고깃배 피리 소리에 꿈을
깨어 / 주옹의 청정한 뜻을 다시 보니 / 문엔 은하수가 떠 있고 두 별이 보
이네³⁹⁾

은하수가 뜬 밤에 강 근처 정자에서 보정과 김남파는 차를 달이는 동안 술을 마시며 시를 짓는다. 이들에게 술과 시는 차를 마시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처럼 보인다.

이상의 선시에서는 승려가 시를 짓는 창작활동에 술을 함께하며 승려의 삶에서 시와 술은 불가분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자들이나 승려들에게 술과 시가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담론의 깊고 얕음을 떠나서 자신의 사유를 시로 도출한다는 것은 당시 음주자의 음주 상태를 대변한다고 본다. 과연 만취한 상태에서 시상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물론 과음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추태는 용납하지 않으며 시상을 떠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술을 마셨다면 승려의 음주도 자신의 사유를 시로 드러내고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물이었다고 생각한다.

2. 비언어적 소통 매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술은 제례와 손님 접대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었다. 술에 대한 문화적 관습은 불교 내에

39) 『茶松詩稿』 「次悠然亭韻」(H314, 2:636a2-3): “野酒詩歌茶半熟 月江漁笛夢初惺 更看主翁清淨意 門浮河漢見雙星.”

서 승려들 간이나 유자와 승려 간의 교류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유자들이 지은 시문에는 그들이 승려와 사찰에서 교류할 때 술을 마시거나 술잔을 나누는 음주 행위가 주요 소재로 등장하여, 음주는 사찰에서 유자들이 향유한 문예 문화의 보편적 여흥과 유희의 하나로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유·불간 문화적·사상적 공유와 교류는 양자가 유사한 교육을 받았으며, 동일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지식층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이다.⁴⁰⁾ 이런 시대적 상황과 문화는 승려들 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음은 계오가 시인이라 부른 누군가에게 보낸 시다.

나는 원래 인간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아 / 집이 가난해 좋은 사람을 술 없
이 대하네 / 구름 속에서 그대가 나의 뜻을 알고 / 깊은 산골짜기 푸른 물
로 거문고를 타며 노래하는구려⁴¹⁾

계오는 전반부 두 행에서 술을 준비해 손님을 대접해야 하지만, 자신은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가난한 수행자이기에 그러지 못함을 미안해하며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산중 생활과 접빈객을 대하는 예의를 묘사했다. 그런 계오가 품은 마음을 안 객은 술도 없이 자연을 즐기며 친목을 나누었다.

사찰에서도 손님을 맞을 때 술로 대접하는 것이 보편적 예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예의를 갖추지 못해도 문제로 삼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계오는 사찰 형편을 핑계로 신성한 공간인 사찰에서만큼은 음주를 거부하며 유자들이 사찰에서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에 저항한다. 한편, 둘째 행에서 술은 빈부를 대변하는 물질로 상징된다. 술을 양조한다는 것은 술을 만들 수 있는 쌀과 누룩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을 의미하여, 양조는 사찰 형편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다. 따라서 술은 부와 예의 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다음은 연담과 징월선사가 지은 선시다.

40) 토마스 성은 김 2018, 321-325.

41) 『伽山叢』 「贈詩村」(H246, 1:766c20-22): “我自人間不適心 家貧無酒好人臨 雲中君識幽人意 爲奏深山綠水琴.”

- ㉓ 방은 좁아 다리 펴기 힘들고 / 문은 낮아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 주인
은 자꾸만 술을 권하며 / 나그네의 수심을 짐작하네.⁴²⁾
- ㉔ 헛되이 흰 백발은 얻었건만 / 마음은 재가 되기 어렵도다 / 누에와 보
리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 사또에게 사례하려고 왔도오. // 남루에서
달은 같이 감상했지만 / 동각에서 대화는 보지 못했소 / 다시 만날 때
술일랑은 권하지 마오 / 우리 불가에선 술을 경계한다오.⁴³⁾
- ㉕ 우연히 친구를 만나니 / 은근히 탁주 잔을 권하누나 / 인연을 따라서
머물지 않음이 없나니 / 행리를 재촉하지 말지어다.⁴⁴⁾

연담의 선시 ㉓에서 선사가 유행 길에 비를 피해 머문 여관의 비좁은 방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때 주인은 그를 위로하려고 술을 권한다. ㉔에서 연담은 첫 두구에서 노인이 된 자신, 다시 말해 출가하여 수행을 오래 했어도 아직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 제어가 쉽지 않은 자신을 ‘식지 않은 재’에 비유한다. 이어서 지난날 자신에게 가사와 음식을 보시한 고을 수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으며 방문 목적을 밝힌다. 끝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불음주계를 어기는 것으로 만나서 담소 나눌 때 자신에게 술만큼은 권하지 말라고 수령에게 당부하며 불음주계를 실천하려는 그의 의지를 표명한다. 그러나 마지막 시구에서 연담은 범계인줄 알면서도 사양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과 감정을 드러낸다. 징월이 쓴 ㉕에서도 우연히 마주친 유자 친구는 그에게 술을 권하고, 징월은 유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재촉하지 말라면서도 차마 술잔을 뿌리치지 못한다.

이들 시에서는 선사들이 유자와 서민 등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와 범계 사이에서 그들이 겪은 내적 갈등을 보여준다. 세속 사람들은 선사들이 교화해야 하는 대상이었고, 사람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술을 통한 유대감

42) 『蓮潭大師林下錄』「滯雨淳昌縣」(H224, 2:239c24-240a01): “室狹難伸脚 門低每觸頭 主人頻勸酒 樹酌客中愁.”

43) 『蓮潭大師林下錄』「次琮山倅代青坡作」(H224, 2:247b16-20): “空得千莖雪 難教一寸灰 非緣蠶麥去 爲謝使君來 共賞南樓月 獨違東閣梅 相逢休勸酒 吾道誠含杯.”

44) 『澄月大師詩集』「宿月村故人家」(H234, 1:489a1-2): “邂逅故人面 慙慙濁酒杯 隨緣無不住 行李莫須催.”

형성이었다. 선사들은 불음주계 규범을 지켜야 하는 승려이지만 과거를 선택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언어적 소통으로 타인과 교류가 보편적 소통 방식이나 사회적 관계 유지에 비언어적 교류가 언어 소통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비언어적 소통에서 중요한 매체이면서 양식은 술과 음주다. 술이 가진 생화학적 효과는 심신 긴장을 이완시키거나, 여흥을 돋구어 술은 타인과의 교류에서 윤희유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능을 한다. 게다가 공동체 의식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술을 마시며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친목 교류 자체를 가치 있는 행위로 간주하여 술은 감성적 교류를 이끈다. 술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격적 특징이 드러나 술은 교류의 매체이면서 인격적 상징이다.⁴⁵⁾ 이와 같은 술의 사회적 소통 기능은 조선 사회에서도 발휘된다. 유가를 비롯한 일반 사회의 보편적인 교류 방식은 술을 매개로 물질 기반의 비언어적 소통으로 사회는 승려들도 그들의 삶의 방식을 수용하여 따라주기를 요구하고, 승려들은 이를 수용하여 사회와의 교류 방식으로 채택한다.

여기에 더하여 술은 승가 내에서 승려들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쳤다. 징월선사가 지은 선시에서는 그 실상을 보여준다.

㉔ 대곡사에 다시 와 묵으니 / 새 얼굴과 옛 얼굴이 반반이네 / 한밤에 함께 공양간 곡식 기울이고 / 아침 술로 오랜 정을 다하네.⁴⁶⁾

㉕ ... 부처님의 크신 비통함 / 널리 스며들어 유정을 깨우치시고 / 널리 스며들어 유정을 깨우치시고 / 불구덩이에서 구해주셨으나 / 부처님의 근심스런 낫빛 편지 못하시네 // ...중략... 스님은 나를 웃으며 맞으시니 / 진흙 단지엔 탁주가 가득하고 / 대나무 여린 싹을 따서 / 옥보다 귀한 밥을 주시네.⁴⁷⁾

먼저 ㉔에서는 징월선사가 대곡사에 갔을 때 그곳 승려들은 선사를 맞이하

45) 박재환 1998, 124-129.

46) 『澄月大師詩集』 「宿大谷寺」(H234, 1:488b17-18): “大谷重回宿 新顔半舊顔 夜供傾廩進 朝酒盡情歡.”

47) 『澄月大師詩集』 「過雙飛寺歎佛像火痕」(H234, 1:491b07-15): “大雄大悲切 弘滲覺有情 救了火坑中 金容愁不寧 ...중략... 緇衣迎我笑 瓦樽濁醪盈 披竹折苗芽 餽之桂玉并.”

는 반가움을 술로 표현한다. ㉔는 징월이 쌍계사를 방문했을 때 지은 선시로 전반부에서 징월은 쌍계사 화재의 참상을 슬퍼한다. 이어진 시구에서 징월은 화마로 어려운 사찰 형편에도 그를 대접하려고 술과 밥을 내온 승려들에게 감사하며 그 마음을 시구에 담았다. 이처럼 승려들에게 술은 객승을 향한 반가움과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자 상징이다.

선시에서는 이별의 슬픔을 표현한 시도 많으며 이때에도 시에 술이 등장한다. 다음은 환성 지안의 선시이다.

두세 잔 탁주로 / 학청선사 전송하나니 / 가득 잔을 채워 그대 취해야 / 깨
 었을 땐 떠나지 못하리.⁴⁸⁾

지안선사는 학청선사와 두세 잔 술로 이별하는 아쉬움을 달랜다. 비록 지안은 다음 날 학청이 숙취로 거동이 불편해 떠나지 못할 정도로 잔을 가득 채우고 싶어하지만, 몇 잔 술로 마음을 위로하며 절주한다.

이 선시에서 술은 이별의 감정을 대변하는 상징물로 선사들은 만남과 헤어짐의 아쉬움을 술에 투영시켜 유가 음주시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주제로 한 유가의 음주시에서 술은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랑을 느끼고 싶은 마음의 상징물이다.⁴⁹⁾ 이처럼 조선 후기 승려들은 술에 반영된 사회적 관념과 표현 방식에 관심을 그들의 시에도 적용하고, 친목 도모와 교류에 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3. 풍속 공유로 내적 갈등과 감정 표출

조선 후기 선시에는 봄, 국화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시가 다수 보인다. 특히 국화는 9월 9일 중양절에 만개하는 꽃으로 가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다. 중양절은 중국 진(晉)나라 시대부터 이어온 중국의 전통 깊은 세시풍속 중 하나

48) 『喚惺詩集』 「別鶴清」(H194, 470b20): “二三盃濁酒 餞送清禪師 滿酌爾須醉 醒時不忍離.”

49) 진성수 2014, 290.

로 사람들은 수유를 허리에 차고, 높은 곳에 올라[登高] 국화를 감상하고, 술잔에 국화를 띄워 국화주를 마시는 것이 이날의 주요한 행사였다. 이러한 풍습은 민간에서 재액을 물리치고 무병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상징성을 갖는다. 한편, 중국과 한국 전통사회의 문인 사이에서는 진나라 때 중양절에 환온(桓溫) 장군이 용산(龍山)에서 베푼 연회에서 가진 주연(酒宴), 작시(作詩)와 화답시(和答詩) 등 맹가(孟嘉)와 얽힌 고사와 대비되어 그것을 그대로 연출하는 풍습이 있었다. 문인들은 그들의 시에 그 감정을 묘사했다. 중양절은 삼국시대에 한반도에도 전래하여 고려시대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중양절 등고시회(登高詩會) 풍류는 세시 풍속으로 확장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⁵⁰⁾ 고려와 조선 유자들 한시에도 친구나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고독함과 외로움을 중양절 풍류에 빗대어 읊었다. 그러면서 유자들은 이백(李白, 701-762)을 흠모하며 그의 시에서 고독과 우울감을 몰아일체의 경지로 승화시키듯 자연과의 합일로 그들의 감정을 해소하고 술로 흥취를 더하여 중양절의 정취를 잡으려 했다.⁵¹⁾

특히, 중양절의 핵심 요소인 국화는 고려와 조선 유자들에게 세속적 욕망을 떨리한 ‘국화시인’으로도 여겨진 도연명의 영향으로 은일(隱逸)적 상징성과 지조와 절개, 도덕적 완성자의 상징으로 비유되었다. 그래서 유자 문인들은 도연명이 그랬듯이 그들도 국화를 집안에 심어 가꾸고, 국화주를 마시며 국화를 감상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지인들과 교류하고, 적적함을 달랬다. 이렇듯 유자들의 한시에서 국화는 가을의 상징성과 음주의 배경이란 두 가지 상징성을 포함한다.⁵²⁾

조선 후기 승려들은 ‘9월 9일’, ‘중양절’ 등 중양절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을 시의 제목으로 붙이고, 이날에 핀 국화와 술에 관한 내용을 담아 그들의 감성과 사유를 드러냈다.

50) 최은정 2017, 266-269; 277. 연회에서 맹가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가 땅에 떨어졌는데 맹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연회를 즐겼다. 그래서 환온이 손성을 시켜 글을 지어 조롱하였으나 맹가가 멋진 화답시를 지어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51) 윤석우 2007, 449-450; 최은정 2017, 277-281.

52) 이동재 2015, 248-250; 257-262.

섬돌엔 국화꽃 만발하고 / 중양절 너만이 홀로 알리니 / 좋은 시절 무엇으
로 위로할까 / 술은 없고 시만 지어 읊도다.⁵³⁾

오암 의민선사가 지은 위의 선시에서 오암은 중양절이라 국화는 만발하게 피었지만, 이날을 즐길 국화주가 없어 시만 읊었다며 술과 시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중양절을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즐기지 못하는 아쉬움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그런 그의 마음을 아는 것은 중양절뿐이라고 말하며 중양절을 인격화한다. 오암이 중양절을 술 없이 보내는 것은 향연이 벌어지는 세속을 떠난 수행자이기 때문이다. 오암은 그런 세속 생활을 끊어내고 절제를 추구하지만, 그러면서도 중양절이란 특별한 날을 맞아 속세의 즐거움을 잠시나마 누려보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며 내적 갈등을 일으킨다. 이 시에서 술은 수행 생활에서 오는 술이란 물질을 둘러싼 심리적 갈등과 스스로에 대한 욕망의 자기 규제로 제시되었다.

오암은 「9월9일」이란 시에서는 고독감을 중양절의 풍류에 담아냈다.

오늘은 바로 9월 9일이라 / 홍국과 황국 피고 단풍도 물들어가네 / 시와
경관은 있는데 술친구는 없고 / 좋은 날 적막함 속에 모자만 떨어지네.⁵⁴⁾

이 시에서도 첫 두 구에서는 중양절의 아름다운 가을풍경을 표현했다. 그러나 후반구에서는 용산에서 멍가는 연회에 취해 모자가 떨어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중양절을 즐길 것과는 대비되게 오암은 국화를 감상하고 시를 짓지만,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날을 즐길 친구는 없고 모자만 떨어졌다며 홀로 쓸쓸하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의 고독함과 처지를 드러낸다. 이처럼 중양절은 세속적 삶의 일환으로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과 잊어야 한다는 오암의 양가감정을 대변한다.

53) 『鰲巖集』「九九」(H211, 762a12-14): “階上黃花發 重陽爾獨知 良辰何以慰 無酒有新詩。”

54) 『鰲巖集』「九月九日」(H211, 770b4-6): “今日正當九月九 紅黃菊外幾丹楓 有詩有景無朋酒 落帽佳辰寂寞中。”

다음의 「국화」에서도 오암은 그의 고독함을 국화에 투영시킨다.

사람들은 용산에 갔다 차례로 돌아오는데 / 국화는 오늘 누구를 위하여
피었는데 / 아이들이 나를 위로하여 궁핍하지 않으니 / 향기로운 꽃을 따
서 술을 사 오네.⁵⁵⁾

중양절을 맞아 사람들은 산에 올라 국화를 감상하고 중양절의 연회를 즐기
고 온다. 그런데 국화는 누구를 위해 피었냐고 반문하며 오암은 국화가 자신을
위해 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은 중양절에서 철저히 소외된 존재로 생각
한다. 다시 말해, 오암은 자신이 중양절을 즐기는 속인이 아니라 수행자임을
자각한다. 그렇지만 그를 위로해주는 이가 있으니 사찰의 동자들이다. 이어 동
자들은 오암을 위해 국화를 따고 술을 사 오니 기쁘지 않을 수 없다. 오암에게
동자들이 준비해준 국화주는 그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위로주였다.

다음은 계오의 「구일」이란 선시이다.

백주는 돈 많은 곳에서 팔고 / 국화는 일시에 피었네 / 산사에서 등잔아래
가을날을 꿈꾸었으되 / 깨고 나니 더욱 알기 어려워라.⁵⁶⁾

조선시대에 소주에 해당하는 백주는 고급술이었다. 그래서 민가에서도 탁
주인 막걸리는 쉽게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술이었지만 백주는 사대부와 같은 상
류층 사람들만이 마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백주는 산속에 사는 계오는 맛볼
수 없는 술이다. 이 시 첫 구에서 계오는 백주는 돈이 많은 부잣집에만 있다고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며 술과 신분의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에 더하여 국화는 가을 한 철 잠시 볼 수 있어 계오가 항상 보며 즐길 수
있는 유상한 존재가 아니다. 첫 두 구는 그런 현상 세계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

55) 『鰲巖集』 「菊花」(H211, 772a12-14): “人去龍山節序回 黃花今日爲誰開 兒童慰我窮愁否 先摘香葩沽酒來.”

56) 『伽山藁』 「九日」(H246, 1:761c1-3): “白酒金多處 黃花藥一時 山燈秋夢事 已覺更難知.”

면서 계오는 술과 국화를 탐하는 것을 가을날 꿈에 비유한다. 이것들은 무상한 존재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소유하려 한다.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자각하듯 계오 자신도 술과 국화라는 물질의 무상함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완전하게 깨닫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한편, 징월선사는 유자와의 교류를 중양절에 비유하여 시로 보여준다. 다음의 선시는 징월이 영천에 관리로 왔던 홍공에게 중양절을 맞아 보낸 시이다.

국화는 그대로 예전의 가을과 같아 / 노승의 중양절 생각은 하염없네 / 어찌하면 사군과 함께 모여 / 시 읊고 술 마시며 서로같이 맑은 흥취 즐기려나 // 가을빛 보려고 석대에 오르니 / 쓸쓸한 회포를 누구에게 털어놓을까 / 중양절이 지나도록 좋은 벗은 오지 않아 / 용산에서 국화 띄운 술잔을 저버렸네.⁵⁷⁾

징월은 첫수에서 올해도 중양절이 돌아와 사군과 만나 중양절 풍류를 즐기고 싶었으나 그가 없어 아쉽다고 말한다. 둘째 수에서 징월은 가을 풍경을 보려고 석대 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 정취를 함께 감상하고 싶은 사군은 중양절이 될 때까지 오래도록 만나지도 못했는데 오지도 않아 결국 국화주를 나누는 시회(詩會)를 가질 수 없었다. 징월은 그가 느낀 삶의 집착과 고독감을 중양절과 국화와 술에 비유했다. 여기에는 징월이 바라는 벗과의 교유에 대한 갈망과 그것의 부재로 느끼는 고독함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이 모두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을 전한다.

선승들이 사용한 이들 소재는 가을이라는 계절, 즉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어 시간적 관념을 갖게 한다. 계절의 인식은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 행위이며, 문학에서 시간은 삶의 과정이나 일의 경과를 상징하면서 주체가 행동하는 시간적 배경이 된다.⁵⁸⁾ 가을에 즐기는 세시풍속인 중양절은 만물이 익어가는 계

57) 『澄月大師詩集』 「重陽日憶永川舊使君洪公」(H234, 1:494a2-6): “黃花猶似舊時秋 殘衲重陽意叟悠 安得使君同此會 相將詩酒作清遊 (一) 爲看秋光上石臺 蕭條懷抱向誰開 良朋不到重陽過 孤負龍山泛菊杯 (二).”

58) 김상진 2015, 218.

절로 삶에 비유하면 삶의 완성이면서 죽음에 다가가는 시간이다. 그러나 선승들에게 아직 완전한 진리의 깨달음은 오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수행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자신과 그 속에서 느끼는 무력함과 수행의 고행을 홀로 이겨내야 하는 고독한 삶을 선승들은 중앙절의 국화와 국화주에 비유했다.

이와 함께 선승들은 유자 문인처럼 사찰에서 국화를 감상하고, 국화주를 마시는 도연명의 은자생활과 같은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유자들은 술 마시는 은자의 삶을 동경했지만, 선승들은 은자의 삶을 살면서 술과 시를 즐기는 유자 문인의 삶을 추구했다. 유자들은 속세에서 탈세속을 희망했고, 선승들은 탈세속의 공간에서 속세의 삶을 동경하며 유·불의 삶을 동시에 유지한다. 이러한 선승들의 삶의 태도는 그들의 정체성을 모호하게도 만든다. 하지만 선승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한 것은 절제와 자기 규제로 정신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었다.

IV. 결론

조선 후기 불교 윤리와 도덕적 체계를 구성하는 불음주계 실천은 사회가 지닌 문화적 관념과 사유 방식에 지배를 받았다. 유가 사회의 술에 대한 신념 체계는 유가 교육을 받은 지식층 승려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지은 선시에 술과 음주에 관한 물질성이 투영되고 기호화되어 나타난다. 유자들은 그들의 음주문화를 그들과 교유하는 승려들이 따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승려들은 유가의 삶의 방식과 덕목과 가치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지식층 승려들은 불교의 종교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의 주된 삶의 윤리를 제시한 유가의 음주 윤리와 규범을 따르면서도 규제와 절제로 음주문화를 형성했다. 승려들은 불음주계의 파계와 지계의 갈림길에서 수행자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보였다.

하지만 조선시대 불교에서 있었던 승려의 음주 문제는 불교 계율 안에서 지

계와 파계라는 단일적인 본질에만 천착하여 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불교는 사회와 분리된 독립적인 집단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비종교인들과 공존하는 공동체이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불교 윤리 전통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조선후기 선사에서 나타나듯이 때로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사회 관습을 불교에서 수용하기를 요구하고, 그것이 불교 내에서 변화 또는 변용 단계를 거치며 전개하고 확산하여 다양한 불교문화를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항상 불교의 본질에만 충실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탈선적 현상도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찌면 이것이 조선불교를 지탱한 힘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탈불교적 현상이나 물질이 가진 함축적 의미를 파헤쳐 전통적인 불교문화로서의 전승 가치와 타당성, 그리고 앞으로 적용 가능한 문화인지에 대한 실용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계율 수지는 승려 개인의 내면적 성숙으로 종교적 목표 달성 기반이므로 이를 지키고 어기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사안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청정한 승가를 형성하는 토대이므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불교문화 형성에 사회적 관념과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관심과 주시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REFERENCES

◆ 약호 및 일차 문헌 Abbreviations and Primary Sources

- H *Han'guk Pulgyo chönsö* 韓國佛教全書 (*Complete Works of Korean Buddhism*), ed. by Han'guk Pulgyo Chönsö P'yöñch'an Wiwönhoe 韓國佛教全書編纂委員會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Complete Works of Korean Buddhism), 14 vols. Seoul: Dongguk Univ. Press, 1979-2004.
- T *Taishō shinshū daizōkyō* 大正新修大藏經, ed. by TAKAKUSU Junjirō 高楠順次郎 and WATANABE Kaikyoku 渡邊海旭, 100 vols. Tōkyo: Daizōkyōkai, 1924-1935.
- Vin *Vinaya Piṭaka*, vol. IV, ed. by T. W. RHYS DAVIS and J. E. CARPENTER.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PTS), 1882.

『伽山藁』	H246.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T23.
『茶松詩稿』	H314.
『摩訶僧祇律』	T22.
『梵網經』	T24.
『四分律』	T22.
『少林通方正眼』	H240.
『松桂大禪師文集』	H200.
『修禪結社文科釋』	H237.
『十誦律』	T23.
『蓮潭大師林下錄』	H224.
『鰲巖集』	H211.
『澄月大師詩集』	H234.
『喚惺詩集』	H194.

◆ 이차 문헌 Secondary Literature

- CHIN, Sung su 진성수. 2014. 「유교경전에서 술[酒]의 상징체계 연구」 (“The Symbol of Alcohol in Confucian Scriptures”), 『양명학』 (*Yang-Ming Studies*), vol. 37, 271-302.
- CHOI, Eun jung 최은정. 2017. 「고려시기(高麗時期) 중양절(重陽節) 관련 한시(漢詩)의 중국 고전시 수용 양상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oryeo’s Chinese Poetry in Relation to Double Ninth Festival during the Goryeo Period”), 『중국학보』 (*Journal of Chinese Studies*), vol. 82, 265-306.
- COMSTOCK, W. Richard 리처드 컴스탁, YOON, Won cheol, tr. 윤원철 역. 2017. 『종교의 이해』 (*The Study of Religion and Primitive Religions*), Seoul: Knowledge and Refinement 지식과 교양.
- HAN, Sang kil & Wegehaupt, M. 2012. “The Activities and Significance of Temple Fraternities in Late Chosŏn Buddhism,”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3, no. 1, 29-63.
- HAN, Myung sook 한명숙. 2012. 「율장(律藏)에 나타난 결과주의적 사유에 대한 고찰」 (*“A Consideration of Consequentialist Thought in the *Vinaya Piṭaka*”), 『불교학연구』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33, 427-457.
- HAN, Su jin 한수진. 2022. 『大菴寺成造所日記』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사찰의 식생활과 음식문화」 (*“Eating and Food Culture of Late Chosŏn Buddhism Based on *The Diary of Chengzaosuo at Datun Temple*”), 『동아시아불교문화』 (*Journal of Eastern-Asia Buddhism and Culture*), vol. 52, 217-259.
- HIRAKAWA, Akira 히라카와 아키라, Sök, Hyenüng, tr. 석혜능 역. 2003. 『원시불교의 연구』 (**Research on Early Buddhism*), Seoul: Minjoksa 민족사.
- JANG, Beoung han 장병한. 2016. 「茶山 丁若鏞의 佛敎詩에 관한 一考察」 (*“A Study on Dasan Jeong Yak-yong’s Buddhist Poetry”), 『동양한문학연구』 (*Dongyang studies in Korean Classics*), vol. 45, 139-168.
- JO, Tae seong 조태성. 2013. 「조선 후기 호남의 불교한시 연구 - 범해(梵海) 각안(覺岸)의 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Honam Zen Poetry in the Later Chosŏn Dynasty : Concentrated on Zen Beomhae’s Poetry”), 『한국시가문화연구』 (*The Studies in*

- Korean Poetry and Culture*) vol. 16, 307-323.
- JUNG, Sook in 정숙인. 2012. 「象村 申欽의 <和陶詩> 중 <飲酒> 20首 연구」 (“A Study on Twenty Drinking Poems Among Shin Hum’s Hwadosi”), 『우리문학연구』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vol. 35, 91-119.
- JUNG, Yong bum 정용범. 2014. 「고려시대 酒店과 茶店의 운영」 (“The Management of Taverns and Teahouses in the Goryeo Dynasty”), 『역사와경계』 (*History and the Boundaries*), vol.92, 1-35.
- KIM, Han sang 김한상. 2015. 「빨리 조문 불음주계에 대한 재고 : 그 어원학적 분석과 계의 두 가지 측면들을 중심으로」 (“Rethinking the Fifth Precept in Pāli: Through Its Etymological Analysis and Two Aspects of *Sīla*”), 『불교학연구』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43, 245-268.
- KIM, Joo sune 김주순. 2004. 「時調와 歌辭에 나타난 陶淵明 飲酒詩의 受容樣相」 (“A Study on the Reception for a Three-Verse Korean Ode & an Old Form of Korean Verse in Tao Yuan-ming's Drinking Poetry”), 『한중인문학연구』 (*Studies of Chinese & Korean Humanities*), vol. 12, 212-237.
- KIM, Jun hyuk 김준혁. 2014. 「조선시대 선비들의 탁주(濁酒) 이해와 음주문화」 (“The Understanding of Cloudy Rice Wine (濁酒) and Drinking Culture Among Chosŏn Dynasty Scholars”), 『역사민속학』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lklife*), vol. 46, 131-158.
- KIM, Sang jean 김상진. 2015. 「시조에 나타난 봄의 형상」 (“A Representation of Spring in Sijo”), 『語文論集』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vol. 62, 217-243.
- KIM, Sung eun Thomas 토마스 성은 김. 2018. 「조선후기 유·불이 공유한 문예 문화-승려와 유교 엘리트의 문화생활을 중심으로」 (“The Shared Literary Culture Between Buddhism and Confucianism During the Late Chosŏn Period: Focusing on the Cultural Lives of Monks and the Confucian Elites”), 『연민학지』 (*The Yon Min Hak Chi*), vol. 30, 301-330.
- KIM, Young mee 김영미. 2019. 「일제 식민지기 ‘음주 취미’의 통제와 양면성-오락 부재(不在)와 음주의 문제화에 대한 일고찰」 (“Control and Duplicity of ‘Hobby Drinking’ in Colonial Korea: A Study on the Absence of Entertainment and Drinking Issues

- in Colonial Korea”), 『역사민속학』 (*The Journal of Korea Historical-folklife*), vol. 56, 193-228.
- LEE, Byung hee 이병희. 2013. 「高麗時期 寺院의 술 生産과 消費」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Alcohol in Temples of Goryeo Dynasty”), 『역사와 세계』 (*History and the World*), vol.44, 227-269.
- LEE, Dong jae 이동재. 2013. 「한국 한시에 나타난 국화의 의미」 (*“The Significance of Chrysanthemums in Korean Classical Chinese Poetry”), 『동방한문학』 (*Dongbang Korean Classics*), vol. 56, 247-277.
- LEE, Ja rang 이자랑. 2021. 「동아시아 불교에서 계율의 수용과 발전: 범계 판단의 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Buddhist Precepts in East Asian Buddhism: Focusing on the Change in the Judgement Standard for Whether or Not Break the Precept”), 『남도문화연구』 (*The Journal of Namdo Area Studies*), vol. 44, 73-101.
- PARK, Hae dang 박해당. 2012.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 승려 문집의 서문을 중심으로」 (*“Confucian Scholars’ View of Buddhism in the Late Chosŏn Dynasty: Focusing on the Prefaces of Buddhist Monks’ Collected Works”), 『태동고전연구』 (*Tae Dong Yearly Review of Classics*), vol. 28, 207-232.
- SONG, Young jun 송용준. 2011. 「도연명 시에 나타난 ‘술’의 의미」 (*“The Significance of ‘Alcohol’ in Tao Yuanming’s Poetry”), 『인문논총』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Journal of Humanites*), vol. 65, 305-329.
- YOO, Suk woo 윤석우. 2005. 「飲酒詩에 나타난 中國詩人의 精神世界」 (“*The Chinese Poet’s Spiritual Worlds in the Drinking Poems*”),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YU, Ok kyong 유옥경. 2013. 「조선후기 풍속화의 農繁期 들밭(鎊)과 술(酒)」 (“Deulbap and Drinks of the Busy Farming Season Portrayed in the Genre Paintings of Late Chosŏn”), 『美術史學』 (*Art History*), vol. 27, 371-404.

Understanding the Life and Drinking of Monks in Late Chosŏn Buddhism Based on Sŏn Poetry

HAN, Su Jin

Lecturer

Dept. of Buddhist Studies at Dongguk University

The drinking ethics of Buddhism, which emphasizes temperance as a proper moral practice, changed to show a tolerant and receptive attitude toward drinking in late Chosŏn Buddhism. The poetry of monks uses metaphorical expressions to describe the background in which this drinking culture was formed. In the Chosŏn era, the ethics and morality of Confucianism presented society with a way of life and values that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surrounding culture, and alcohol was considered to be a very important substance in everyday life throughout society. The tolerant attitude toward and advocacy of alcohol use by Confucian society was one of the reasons why monks chose to drink alcohol. Monks, who frequently engaged in social exchanges with Confucian scholars, often reflected on the drinking ethics and culture of Confucianism in the context of their ascetic lives. Following the lead of Confucianism, they opted to engage in drinking culture, wherein alcohol served as a non-verbal means of communication that could help build relationships, including with the Confucians, as well as helping them express their thoughts and write poetry more freely. This lifestyle of drinking brought ambiguity to the identity of monks at the time. They led lives that were similar to the cloistral life pursued by Tao Yuanming, a notable drinking poet. Although drinking may have led to internal conflicts among Sŏn practitioners, they treated alcohol with an attitude of self-regulation and moderation. In late Chosŏn

Buddhism, alcohol was a means of social exchange for monks, as well as a representative substance of that era of Korean Buddhism. This drinking culture of Korean Buddhism supported Korean Buddhism in the Confucian society of Chosŏn, which was socially powerful, despite being in conflict with Buddhist ethics. The specific circumstances affecting Buddhism at certain times may somewhat transform Buddhist ethics, but the fundamental spiritual thought should never be forgotten.

Keywords

Chosŏn Buddhism, drinking culture, Sŏn poetry, precept of not drinking alcohol, drinking ethics, alcohol

2024년 02월 08일 투고
2024년 03월 05일 심사완료
2024년 03월 07일 게재확정